

# 친환경 표방 광주 공원묘지, 플라스틱 조화 ‘골머리’

### 영락·망월묘지공원 조화 반입 전면 금지에도 추모객 대다수 들고와 환경오염 우려 속 광주도시공사 ‘법적 근거 없어 강제수거도 어려워’

추석 명절을 맞아 광주 영락공원, 망월묘지공원 등에 추모객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묘에 놓인 ‘플라스틱 조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해 설부터 오랫동안 썩지 않고 토양 오염, 탄소 배출 증가 등 환경 문제를 초래한다며 영락·망월묘지공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추모객 대다수가 여전히 묘에 조화를 놓고 있어서다. 추모객들 사이에서는 “열흘도 못가 시들어버리는 생화를 비싸게 주고 구입하느니, 조금이라도 추모의 마음이 더 오래 남는 조화를 쓰고 싶은 마음”이라며 도시공사의 조치에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일 광주시 북구 효령동 영락공원과 북구 수곡동 망월묘지공원 등지의 묘에는 플라스틱 조화가 곳곳에 놓여 있었다.

영락공원 철쭉묘지자연장의 경우 1층 단에 놓인 100여개 꽃 중 어림잡아 80여개가 조화였다. 정마루묘역에도 비슷한 비율로 조화가 가득 꽂혀 있었다. 일부 조화는 지난 명절이나 기념일부터 있었던 듯 색이 바래거나 해진 상태였다. 망월묘지공원도 꽃이 놓인 묘 10개 중 8-9개는 조화일 정도로 조화 비율이 높았다.

각 묘지에는 광주도시공사 ‘공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전면 금지’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지만, 추모객들은 여전히 조화를 들고 묘지를 찾아오

고 있었다.

추모객들은 환경 문제도 이해하지만, 생화 관리가 어렵고 쉽게 썩어 별레가 꼬이거나, 가격대가 비싼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영락공원 내 철쭉묘지자연장을 찾은 유상미(여·45)씨는 조화(5000원)를 사서 시아버지 묘를 찾았다. 유씨는 “생화는 시들어버리고 바람에 날아가는 데다 생화 가격이 두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늘 조화를 사서 온다”고 말했다.

망월묘지공원을 찾은 한영규(65)씨도 아버지 묘지에 놓으려 조화라 된 2만 5000원짜리 작약 화분을 샀다가, 광주도시공사 현수막을 보고 생화 국화 꽃다발로 교환했다고 한다. 한씨는 “조화를 구입하면 취향껏 꽃을 구매할 수도 있고, 관리도 편해 자주 이용해 왔다”며 “묘지를 자주 찾아오지 못하니 조화를 뒤 왔는데, 아예 공원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엄포를 놓으니 하는 수 없이 생화로 바꿨다”고 말했다.

묘지 인근에서 꽃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조화를 구입하는 이들이 많은데 무작정 반입을 금지하니 답답하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영락공원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40대 송희정씨는 “조화를 금지하면서 매출 타격이 크다. 조화는 한 번에 네다발씩 사기 때문에 생화는 금방 시들다 보니 한 두송이 정도만 사기 때문에 매출이 하락하



추석을 닮아 앞둔 지난 1일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에 성묘객들이 두고 간 조화 꽃다발이 잔뜩 놓여져 있다.

고 있다”며 “조화 반입을 금지한 이후로 매출이 전년 대비 체감상 30%씩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김선희씨는 “조화는 생화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잘 팔린다. 영락공원에 가는 가족들도 안 씌기 때문에 조화를 선호한다”며 “도시공사에서도 전국적으로 조화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생화 판매에 집중하고 있지만 답답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시공사 측은 매년 명절 때마다 묘지에 쌓이는 플라스틱 조화로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이 발

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플라스틱 조화는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거나 훼손돼 결국 쓰레기로 처리돼야 하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소각해야 해 처리도 번거롭고 환경오염 우려도 크다라는 것이다.

도시공사 측에서 묘에 놓인 조화를 임의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환경오염 우려를 키우고 있다. 묘에 놓인 꽃은 유족의 사유재산인 만큼 선불리 폐기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공사 측 설명이다. 도시공사는 오는 11월부터는 묘지 내 설치된 플라스틱 조화를 전량 수거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법적 근거가 없어 강제로 수거하거나 판매를 막

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묘지 앞에서 국화 생화를 추모객들에게 나눠주는 등 캠페인을 통해 생화 반입을 권장하는 것이 이상 적극적으로 조화 반입을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전담공 공원사업팀 망월묘지소장은 “플라스틱 조화 반입 제한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인데 현재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돼서 당장은 권고 수준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제도나 법안 제정을 추진해 일정 유효기간을 거쳐 묘지 내에 설치된 조화는 권고 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지역 환경단체도 묘지마다 조화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이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을 내놨다. 묘지공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하며, 조화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환경단체 주장이다.

이정래 환경실천연합회 전남본부 환경운영위원장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결국 플라스틱이고, 분리수거도 안 돼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오랫동안 시민들 곁에 남는 공원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서 조화를 지양하는 등 인식 개선이 절실하고 관련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행복한 명절 되세요”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중흥하나 어린이집 원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송편과 선물을 들며 ‘행복한 명절 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남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 40%대 그쳐

### 수도권 대학보다 20% 밀돌아 2025학년도 입학생 126명 중 광주·전남 대학 출신 13명 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수도권 대학 평균 합격률은 6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전남대 로스쿨 합격생조차 대다수가 수도권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2025년 3년 동안 전남대(120명) 로스쿨 학생들의 평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6.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서울대 로스쿨(84.9%)과는 38%p 넘는 차이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212명 응시 98명 합격(46.2%), 2024년 217명 응시 114명 합격(52.5%), 2025년 217명 응시 86명 합격(39.6%) 등이었다.

전남대를 비롯한 전국 지방 소재 로스쿨 학생들의 최근 3년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로스쿨(평균 61.9%)에 비해 19.6%p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대 외에는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 등 지방 로스쿨 전반적으로 합격률이 낮았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로스쿨 입학생들이 대부분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도권 대학을 나온 것으로 확인돼 ‘로스쿨 읍서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대 로스쿨 입학생의 경우 2025학년도에 126명이 합격했는데, 이 중 광주·전남 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 10명, 조선대 2명, 광주과학기술원 1명 등 13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고려대 13명, 연세대 11명, 이화여대 12명, 한양대 11명, 성균관대 9명, 서울대 7명, 경희대 6명 등 ‘명문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전남 뒤덮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해야”

### 1만3300ha 피해... 전국 최대

수확을 앞두고 전남 쌀 재배 농가를 뒤덮은 벼 깨씨무늬병(광주일보 9월19일 7면)을 즉각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박형대(진보·장흥) 전남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까지 전남지역 1만3300ha 쌀 재배 농지에서 깨씨무늬병 피해가 확인됐다. 전국에서 2만9700ha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남의 피해 면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황과 발생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에 착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농림부가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수확이 한창인 시기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벼를 수확하고 나면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은 어렵고, 농업재해로 인정되더라도 피해 보상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추석 연휴 전까지 기본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농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벼멸구와 깨씨무늬병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기후변화에 둔감한 농정을 성찰하고, 상시적이고 구조적인 농업재해 대응 체계를 갖춘 기후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확기 전에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법원, 위니아 회생개시 결정

법원이 광주 가전산업의 한 축을 지탱해온 대우 위니아그룹의 주요 계열사 위니아의 회생신청을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1일 위니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위니아에 대한 채권자는 551명이며, 채무액은 4000억원대로 추산됐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주식은 이달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내년 1월 9일에 제출하도록 했다.

위니아는 지난달 3일 광주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와 회사재산 보존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법원은 같은달 8일 보존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추석연휴 시작부터 비...구름 사이 보름달 볼 듯

### 광주·전남 최고 80mm 비 전망

황금연휴인 추석 연휴 시작부터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일 밤부터 3일 사이 서해 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다”고 1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귀성이 시작되는 2일부터 3일 사이 광주·전남 지역에 20-60mm, 전남남해안에는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 있고, 남해안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 보름달은 광주·전남 지역 기준 6일 오후 5시 33분에 뜨고, 7

일 오전 6시 19분에 질 예정이다. 보름달이 가장 높이 뜨는 남중 시각은 광주 6일 밤 11시 51분으로 예상된다.

또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달이 되는 시각은 추석 다음날인 7일 낮 12시 48분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13-18도, 최고 24-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2일 아침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5-27도를 보여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큰 폭을 보이겠다. 3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소 내려가 한낮 21-24도로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4일부터 9일까지 연휴 기간에는 낮 기온이 26-28도를 보여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단풍 절정, 영암 월출산 11월 4일·내장산 6일

오는 11월 4일 영암 월출산을 시작으로 광주·전남 지역 가을 단풍이 차례로 절정에 이를 전망이다.

산림청이 1일 공개한 ‘2025년 산림단풍 예측지도’에 따르면 영암 월출산 단풍이 오는 11월 4일, 안도 수목원은 같은 달 7일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해당 지도는 우리나라 주요 산림에서 각 수준의 단풍이 50% 이상 물드는 ‘단풍 절정시기’를 예측한 결과를 담고 있다.

전남 지역을 비롯해 올해 전국 단풍은 대체로 이달 하순부터 11월 초에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수중별로는 은향나무는 오는 28일, 참나무류는 오는 31일, 단풍나무류는 오는 11월 1일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단풍나무류의 경우 강원 설악산(25일)을 시작으로 속리산(27일), 충남 가야산(31일), 한라산(11월 4일), 내장산(11월 6일) 순으로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은향나무는 경기 화악산(17일), 충북·경북 속리산(25일), 경기 축령산·충남 계룡산(26일), 제주 한라수목원(11월 14일) 순이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지난 10년 대비 단풍

